

정통 오프로드 되살린 그레나디어, 아시아 최초 국내 출시

이네오스 제작·차봇모터스 수입
지향점, 디자인·성능·내구성 3가지
BMW 엔진에 마그나 플랫폼 활용
공간 효율↑ 오버행↓ 차체 강성↑
서울 성수동 전시장도 완성단계

“내구성에 대해서는 믿음이 있다. 검증된 부품을 사용했고, 쉽게 교체할 수도 있다” 차봇모터스 정진구 대표는 자신있게 말했다.

용감한 두 회사가 만났다. 이네오스가 처음으로 만든 자동차 그레나디어를 차봇모터스가 첫 수입차로 선택했다. 흥미해지는 ‘4X4’ 원칙을 충실하게 따른 자동차를 완전히 혁신적인 방법으로 판매한다는 계획이다.

이네오스오토모티브와 차봇모터스는 22일 서울 반안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에서 그레나디어를 아시아 최초로 공개했다.

그레나디어는 오프로드 자동차 본연의 성능에 충실하지는 콘셉트로 만든 모델이다. 이네오스그룹 짐래트클리프 회장이 2017년 처음 아이디어를 생각한 펄 이름에서 따왔다.



정진구 차봇모터스 대표이사(왼쪽)와 저스틴 호크바 이네오스 오토모티브 아태지역 총괄사장이 그레나디어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지향점은 단 3가지다. 오프로드 디자인과 그에 걸맞는 성능. 그리고 내구성이다. 영국 오프로더를 대표하는 디펜더와 꼭 닮은 디자인 때문에 법적인 분쟁까지 겪을 정도로 전통적인 외관으로 이름을 알렸다.

그레나디어는 성능과 내구성을 위해 검증된 자동차 기업들과 과감한 협업을 진행했다. BMW 엔진에 마그나 플랫폼, ZF 변속기 등을 활용했다. 사다리꼴 프레임 새시와 3개의 록킹 디퍼렌

셜, 솔리드 빔 액슬 등 동급 최고 오프로드 기능을 갖췄다. 생산도 메르세데스-벤츠에서 인수한 독일 함박크 공장에서 한다. 연간 3만대를 목표로 한다.

단순히 좋은 부품만 가져다 쓴 것은 아니다. 이네오스의 엔지니어링 기술을 결합해 실용성을 최우선으로 한 디자인도 완성했다. 박스형 외관으로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새시 모서리에 바퀴를 배치해 오버행 최소화, 알루미늄 프레임 등 차체 강성도 높였다.

쉽게 부품을 교체할 수 있도록 설계해 오프로더 특성상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사태에 대처하기도 쉽도록 했다. 오프로더를 위한 액세서리 활용도 확대할 예정이다.

실내 인테리어는 실용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다. 전자 제어를 최소화하고 제어 버튼 대부분을 물리적으로 만들었다. 아날로그식 센트럴 컨트롤 시스템에 항공기 스타일 오버헤드 컨트롤 패널. 직관적이면서도 미래지향성을 포기하지는 않았다.

이네오스는 내구성에 특히 자신감을 드러냈다. 개발 단계에서부터 내구성에 주안점을 뒀으며, 출시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이유도 테스트를 위해서라는 것. 실제로 이네오스는 그레나디어를 오랜 기간 다양한 환경에서 테스트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상용화했다.

사후 서비스를 위한 논의도 진행 중이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전국 서비스를 위해 차봇모터스와 다른 기업들도 협업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일단 성수에 들어서는 전시장도 완성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현재 글로벌 주문량은 1만5000대라

는 설명이다. 대중 모델이 아니긴 하지만, 글로벌 시장에 본격적으로 출시되면 판매량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미래 계획도 소개했다. 일단 그레나디어에 이어 다양한 오프로더 라인업을 확대한다는 목표이다. 올해 말에는 궁극적인 파워트레인으로 평가하는 수소 전지 모델도 소개할 수 있을 것으로 약속했다.

정진구 차봇모터스 대표이사는 “국내 아웃도어 및 레저시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정통 오프로드 차량에 대한 관심도 높은 편이다. 반면 실제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모델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그레나디어는 최선의 선택이 될 것이다”라며, “국내 공식 수입원으로서 차봇모터스는 그레나디어의 완벽한 사후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서울 성수동에 건설 중인 전시장에서도 곧 그레나디어를 만나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그레나디어는 31일 경기도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3 서울모빌리티쇼에도 소개된다. 하반기 정식 판매를 시작할 예정, 아직 출고가는 미정이다.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

‘한빛-TLV’ 지원 코오롱, 우주산업 첫 결실

소형 발사체 성공적 발사로
부품 공급, 108억 투자 성과

코오롱그룹이 우주산업 투자 성과를 거뒀다.

코오롱은 21일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에서 발사한 ‘한빛-TLV’에 참여했다고 22일 밝혔다. 코오롱테크컴퍼지트가 주요 부품 공급사로, 코오롱글로벌이 전략적 투자자로, 코오롱인베스트먼트가 재무적 투자자다.

코오롱은 시험 발사체에 초경량과 고내열성 복합재발 기술을 바탕으로 생산한 주요 부품을 공급했다. 우주궤도에 정상 안착할 수 있도록 추진력을 공급하는 추진시스템 핵심 부품이 대표적이다. 복합재 연소관 챔버와 복합재 노즐 조립체 등, 발사체 상부에 탑재체를 보호하는 노즈콘 페어링 역시 코오롱테크컴퍼지트 작품이다.

코오롱은 발사체의 부품 공급 뿐 아

니라 이노스페이스에 대한 투자도 함께 진행했다. 투자회사인 코오롱인베스트먼트는 2019년에 10억 원의 첫 투자를 시작으로 다음해 10억 원을 추가로 투자했다.

2021년에는 모빌리티 소재·부품 전문계열사인 코오롱글로벌텍이 60억 원을, 코오롱인베스트먼트가 추가로 28억 원을 투자하면서 코오롱그룹 계열사가 이노스페이스에 투자한 총금액은 108억 원으로 늘었다.

이는 이노스페이스 전체 지분 중 17.7%(23년 3월 현재 기준)로 외부 투자자들 중 최대 지분이다.

코오롱은 이번 소형 발사체의 성공적인 발사를 발판 삼아 본격적으로 민간 우주산업에서의 영역을 확장한다. 위성, 관제, 통신 등 국내 우주개발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검토하며 사업분야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재웅기자



21일 발사에 성공한 국내 최초의 민간 시험발사체인 ‘한빛-TLV’가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에서 발사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

SKT, 5G 오픈랜 인빌딩 실증망 구축

첫 실증 사례로 실내외 구성 완성

SK텔레콤은 5G 오픈랜 인빌딩 실증망 구축에 나선다. 국내 중견 기업 에치에프알과 함께 오픈랜 장비 전력 소모 등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자사 분당 사옥 내에 국내 중소기업과 오픈랜 기술 협력을 위한 5G 오픈랜 인빌딩(실내) 실증망을 구축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연동 품질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SKT가 구축한 오픈랜 인빌딩 실증망에서 국내 중소기업들과 협력해 오픈랜 장비의 성능을 실내 사무공간에서 시험했고, 실제 서비스를 연동해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SKT는 인빌딩 실증망의 첫 실증 사례로, 국내 중견 기업인 에치에프알과 함께 클라우드 기반의 5G 오픈랜 기지국을 설치하고, 안정적인 5G 인빌딩 서비스 품질과 성능을 확인했다.

SKT는 이번 실증에서 전송속도, 지

연시간 등 네트워크 성능 측정은 물론, 실시간 서비스(웨어러블 360° CCTV)를 시연하며 서비스 품질 관점에서도 실증을 진행했다.

또 SKT가 이번에 실증한 5G 오픈랜 기지국은 기존 오픈랜 장비보다 전력소모를 줄이고 기지국 용량을 개선했으며, 장비 크기도 기존 중대형 서버에서 실제 기지국 수준으로 소형화했다.

이로써 SKT는 기존의 실외 오픈랜 필드 실증망에 이어 이번에 인빌딩 실증망을 구축함으로써 실내외 실증망 구성을 완성했다.

SKT는 올해 초 열린 MWC 2023에서 관련 내용을 전시해 관람객들에게 호평 받기도 했다.

SKT는 오픈랜에 대한 활발한 실증 활동을 통해 다가올 오픈랜 시대를 준비함과 동시에 국내 중소 제조사들과 함께 협력을 지속함으로써 국내 오픈랜 생태계를 키워 나갈 계획이다.

/채윤정 기자 echo@

카카오모빌리티, 英 ‘스플리트’ 품고 첫 해외 진출 도약

전 세계 모빌리티 서비스 통합 구축
우버·그랩 등 주요 글로벌 고객 보유

카카오모빌리티가 영국 모빌리티 중개 플랫폼 ‘스플리트(Splyt)’를 인수하고 본격적인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인수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첫 해외 기업 인수 사례로,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번 인수를 통해 해외 현지 직접 진출을 가속화할 발판을 확보하게 됐다.

2015년 영국에서 설립된 스플리트는

글로벌 슈퍼앱들을 대상으로 데이터 연결을 통한 글로벌 API 표준화를 제공해, 각 앱 내 공급자들과 이용자 수를 연결해 주는 독보적인 글로벌 중개 플랫폼이다. 파편화된 전 세계 모빌리티 서비스를 통합해 평소에 자국에서 쓰던 앱 하나로 전 세계 어디에서나 손쉬운 이동이 가능하도록 연결하는 사업모델을 구축해 왔다.

현재는 ▲라이드헤일링(차량 호출) ▲마이크로 모빌리티 ▲대중교통 등은 디맨드서비스 전반에서 솔루션을 제공

하고 있다.

스플리트는 이러한 독창적인 사업모델과 기술력을 인정받아 우버(Uber), 그랩(Grab), 카림(Careem), 캐비파이(Cabify), 트립닷컴(Trip.com), 부킹홀딩스(Booking Holdings) 등 주요 글로벌 플랫폼 대다수를 고객으로 보유하고 있다. 전 세계 슈퍼앱들과의 광범위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아시아·북미·중동·유럽 대륙 내 150여 개 국가에서 20억 명에 달하는 이용자를 연결하고 있다.

/채윤정 기자

두산, 우즈벡 LNG발전 시장 첫 수주

카자흐스탄 이어 약 600억원 규모

두산에너지빌리티가 중앙아시아 천연가스(LNG)발전 시장에서 연이은 수주에 성공했다.

두산에너지빌리티는 중국의 EPC인 하얼빈일렉트릭(HEI)으로부터 우즈베키스탄 ‘시르다리아 2단계 천연가스발전소’ 기자재 공급 계약 착수지시서(NTP)를 접수했다고 22일 밝혔다. 계약금액은 약 600억원 규모로,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첫 수주다. 지난 15일 카자흐스

탄에서 1조 1500억원 규모의 발전소 공사 계약 이후 일주일 만이다.

이 발전소는 1600MW급 규모로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슈켄트 남쪽으로 150km 떨어진 시르다리아 주에 2026년 상업운전을 목표로 건설된다. 두산에너지빌리티는 이번 계약으로 500MW급 스팀터빈과 발전기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우즈베키스탄 에너지부에 따르면 현재 15.8GW인 발전 설비용량을 2030년까지 29.3GW 규모로 증설할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ysw@